

임마누엘 [총성호] Vol.13, No.1, Jan 1, 2017

Emmanuel

Contents

Vol.13, No.1, Jan. 1, 2017

말씀의 창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2)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1 CORINTHIANS 4:2, NIV)

I. 행전시리즈

02	말씀의 창 - 고린도전서 4: 2
04	담임 목사 칼럼 - 부르심과 충성
06	믿음의 선진들 -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08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0	세계 속의 교회 탐방기 - 태국 한인 교회를 다녀와서
12	중국 단기 선교 보고서 -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14	공예배 현장 - 초등부 예배
18	청교도의 후예들 - 조나단 에드워즈
20	성경 일독의 해를 보내며 - 전교인 성경 통독의 해를 보내며
22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 Ruby R. 켄드릭

II. 실만한 물가

24	전도팀 - 기도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라
26	임마누엘 레시피 - Tofu Salad
28	인터넷과 아이들 - Cyber Bullying
30	물댄 동산 - 아름다운 기도
32	선교 영어 한마디 - Mom to Mom
34	성경 속의 식물 - 에셀 나무
36	시가 있는 풍경 - 복된 일
37	크리스천 명언 - 존 파이퍼
38	임마누엘 카툰
40	음식 상식 - 상추의 효능, 천연 강장제
42	초대의 글 - 새벽
44	그림 이야기 -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III. 임마누엘 사람들

46	나의 사랑하는 책 - 더 좋은신 하나님 천사도 흠모하겠네
48	부활의 증인 첫번째 -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50	부활의 증인 두번째 - Weak and Strong
52	베트남 단기 선교 간증 - 베트남을 사랑하시고...
54	초등부 교사 섬김 간증 - 네, 저는 살았을 때 주일학교...
56	성경 일독 간증 - 말씀 안에서 견뎌가는 삶
58	찬양팀 - 한목소리로
60	나의 노래 -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62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팀,부서 소개
64	팀 소개 첫번째: 산상 기도팀 - 기도의 전사들
66	팀 소개 두번째: 60분 주일 주차팀 - 기도온의 후예...
68	건강과 식생활 - 장내 미생물 이야기
70	크리스천 영화방 - 동주 (2015)
72	임마누엘 인터뷰 -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 윤길목 집사님...
74	임마누엘 한국 학교 글 잔치 - 낙엽에게, 파랗 파랗 휘휘, 바다
76	충성호 특별 기획 - 2016, 전교인 성경 일독 은혜 한마디
78	편집 후기 - 2016 임마누엘 편집부 편집후기

부르심과 충성

‘충성’을 생각하면 저는 저의 방위병 시절이 기억납니다. 저는 대학 1년을 마치고 당시 용산에 있던 어떤 학원에서 운전 배워 19살에 운전병으로 육군본부에 지원하여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던 저는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서 열흘 정도 머물다가 훈련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귀향’을 당하여, 다시 돌아와서 징병 신체검사 3수 끝에 방위병으로 겨우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태릉에서 한 달의 훈련을 마치고 서울 어느 동사무소에서 병사계 조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이등병, 최고 말단 졸병인 방위병에게는 누구나 다 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다 ‘충성’하고 외치며 경례를 올려야 했습니다. ‘충성’을 외치면서, 제게 떠오른 것은 방위병도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군인’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지위에 상관없이 나를 불러준 국가가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충성할 조국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저에게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불러서 배치해준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저를 불러준 조국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제가 부름 받은 자리는 동사무소였습니다. 5, 6명의 방위병이 함께 일했습니다. 대부분 중졸 정도의 학력이었기 때문에 사무는 거의 저 혼자 보았고, 업무는 주로 예비군 전출입이나 배치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저의 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말단 자리에도 챙길 수 있는 이권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저의 권한 안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해드렸을 뿐인데, 어떤 분이 고맙다며 사양을 했는데도 5천 원을 억지로 쥐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그 돈으로 후임병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일 외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지원 입대로 그렇고, 징병 신체검사를 3번이나 받은 것도 그렇고, 다들 놀아도 열심히 자리를 지킨 것도 그렇고,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낼 만큼 큰 업적을 세운 적은 없지만, 저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잘 난 사람들, 성공한 분들도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나를 부르신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명 없이 그래서 살아야 하는 목적도 이유도 없이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살덩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며 의미 있는 삶,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소명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까? 부모의 자리를 기쁘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양 떼를 섬기는 목자/부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를 즐겁시다.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언젠가 창조주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엡4:1)

글 손원배 목사



‘섬 선교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1891-1950)



주민 1,700명 중 90% 이상이 크리스천인 곳이 있다.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 ‘증도’다. 증도는 ‘복음의 땅’이라고도 불린다. 이처럼 증도가 복음화된 데에는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고, 한 여인의 끈찍한 사랑과 기도와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증도가 있다.

‘증도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는 1891년 2월 2일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해 주위의 칭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서당에서 글공부하고 싶었으나 부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08년 그녀가 열일곱 되던 해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가 있던 남편에게 신혼 첫날 소박을 당했다. 문준경은 이때부터 ‘남편 있는 생과부’ 신세로 지내야 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데는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남는 시간은 시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국문을 깨우치고 한문을 공부하는데 할애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큰 시숙과 생활하게 돼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목포로 건너와 단칸방에서 살바느질하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

이런 문준경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줄기 놀라운 빛으로 다가왔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교회가 유명한 성결교 부흥사인 이성봉(李聖鳳) 목사(당시 전도사)가 초가집 한 칸을 얻어 막 개척을 시작한 북교동 성결교회였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낙도 없었던 그녀에게 이성봉 목사의 설교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은 새로운 삶의 기대와 기쁨을 채워 주었다. 1년 만에 학습과 세례를 받고 개인 전도와 축호 전도에 가장 열성적인 성도가 되었다. 집사 직분을 받은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것을 서원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결혼한 여자는 입학할 수 없는 관례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경성 성서학원(서울신대 전신)에 청강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정규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학금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그녀는 이성봉 목사의 보증과 요청으로 결국 정규학생이 되어 기숙사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문 전도사의 전도 열정은 남달라 졸업할 때까지 6년을 도서

지방 순회전도사가 되어 방학마다 고향으로 내려갔다. 33년 진리 교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35년 증동리 교회, 36년 대초리 교회를 차례로 건립했고 방축리에는 기도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교회를 세운 그녀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쉬지 않고 따랐으나 기도는 언제나 승리를 안겨 주었다. 문 전도사의 열정적인 기도는 신유의 은사까지 더해 ‘섬 여의사’란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졸업 후에도 대도시를 마다하고 증도로 돌아온 문 전도사는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무교회 지역을 돌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전도 특징은 섬마을 사람의 생활에 들어가 함께 우는 것이었다. 다도해 773개 섬 중에 122개 섬을 떠돌며 그녀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노릇, 우체부 노릇을 마다치 않았고 섬 주위 돌썩발 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1년에 고무신을 아홉 켤레나 바꿔 신었다고 전해진다. 문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는 신안 일대 100여 곳이며 증도에는 모두 11개의 교회를 세웠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1943년 일제의 탄압은 성결교단을 강제 해산함과 동시에 문 전도사가 개척한 증도 교회에까지 여파가 미쳤다. 그녀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며 목포경찰서로 불러내 고문을 일삼았다. 이때마다 문 전도사는 찬송가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를 부르며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아무리 회유와 협박이 이어져도 굴욕적인 신사참배는 허락지 않았다. 그런데 해방 후 공산당을 따르는 좌익들의 활동은 이 작은 섬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6·25 후 지역 전체가 인민군의 손길에 넘어가자 평소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문 전도사와 성도들을 못살게 굴었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증동리 섬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의에 찬 공산당원들은 교인과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단도로 내려져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 문 전도사에게 와서는 “새끼를 많이 낀 씨암탉이구먼”이라며 몽둥이로 내리쳤다. 문 전도사의 죄목은 ‘새끼를 많이 낀 씨암탉’이었는데 이는 그녀의 고무신행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어진 총탄에 의해 59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이 사실은 옆에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수양딸 백정희 전도사에 의해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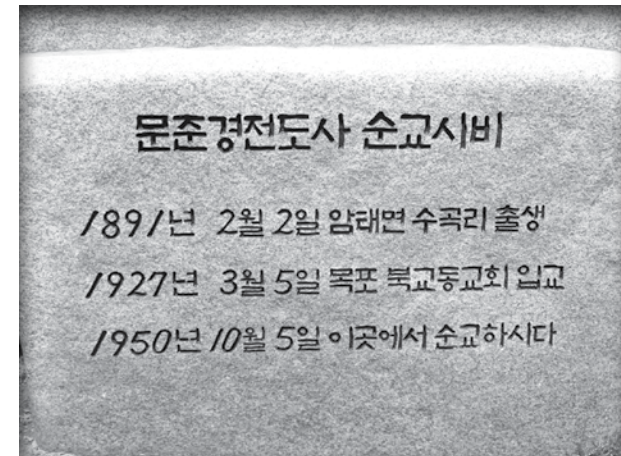
증도에 남아있는 그녀의 발자취

문준경 전도사가 처음 개척한 증동리 교회는 바닷가 언덕에 세워졌다. 증동리 교회 앞마당에는 낡은 시멘트 건물이 하나 있다. 문 전도사의 피로 범벅이 된 바닷모래를 실어와 옛 증동리 교회를 건축했다고 한다. 문 전도사는 많은 후배 교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CCC 창립자 고 김준곤 목사 와 이만신 목사, 정태기 목사를 비롯해 증도 출신 목회자만 100명이 넘는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2013년에 문을 열었는데 문 전도사가 북한군에 의해 처형당한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세워졌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에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 예배당이 아담하게 서 있다. 문 전도사의 헌신과 사역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녀가 흘린 피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출처: <http://news.onnuri.org>, <http://blog.daum.net/sungh-wa/15665695>에서 발췌.편집

사진 출처: <http://photohs.co.kr/xe/2159>

정리 편집부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투신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팔 헤토다의 예수 문화 학교(JESUS CULTURE SCHOOL)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다섯분의 정예부대(?) 파송으로 인해 저희 JCS 팀원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귀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과 스태프들이 그분들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고 묻습니다.

예수 문화 학교라는 이름이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우리 학교 소개를 해 드리자면, 종교 계급 카스트가 지배하는 힌두문화에 속한 네팔을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 문화로 변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훈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고 평등합니다.” “WE ALL ARE EQUAL AND PRECIOUS IN JESUS CHRIST”입니다.

저희 예수 문화 학교는 BANASPATI(버너스빠띠)와 NAYA BASTI(너야 버스띠)라는 두 곳의 빈민촌에서 8명의 현지 스텝이 아침 TUTORING과 오후 HOMEWORK SCH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JCS에서는 빈민촌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에게 지성, 인성, 영성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지성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빈민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부모, 지역, 학교, 사회의 무관심, 아동 노동) 때문에 초등학교 2~5학년 사이에 자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5학년이 되어 도 간단한 네팔어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학교와 멀어집니다. 그렇게 학교와 멀어진 아이들은 거리에 내몰리기가 쉽고 그곳에서 온갖 나쁜 습관을 습득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성노예로 팔려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런 결과에 쉽게 노출되는 아이들을 위한 예방 사역으로 아침에는 미진한 공부를 도와주는 TUTORING을, 오후에는 학교 숙제를 스스로 해결 수 있도록 돕는 HOMEWORK SCHOOL 운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아이들의 성품 변화에 관심을 두는 교육입니다. 빈민촌 아이들의 성격이 주로 많이 거칩니다. 동네에서 본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주먹다짐을 자주 하고, 거친 언어와 낮은 자존감과 함께 집중력, 인내력, 남에 대한 배려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색칠하기,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암송하기, 연극, 노래배우기, 동네 쓰레기 줍기... 등등 환경에 적절한 30여 가지의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일 아침 한 시간씩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교육입니다.

영성 교육은 신앙 교육입니다. 금,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 외에 매일 아침 한 시간 가지는 인성 교육시간에 함께 성경 암송, 찬양 배우기, 찬양 몸짓 만들기, 성경 내용으로 연극하기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육입니다.

글 김경수 선교사 (네팔)

저희 예수 문화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우기 방학 5주간 특별 훈련을 받은 16명의 학생 (수딕, 서로즈, 뎀, 디페스, 어무리따, 수꾸, 러치미, 아라띠, 러미나, 라디까, 영기따, 전다,소누, 어미샤, 수니따, 언주) ASSISTANT TEACHER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여 차세대를 이어 갈 수 있는 자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8명의 정규 교사들이 빈민촌의 거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비바, 머누지, 섀토스, 서남, 뎀, 머니샤, 시따, 버비따)

*힌두의 가장 큰 축제인 더사인과 띠알 기간 약 5주 동안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시작된 지 2개월 된 버너스빠띠 지역에 두 분의 선생님을 추가해야 하는데 신실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빈민촌 내의 여러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예수 문화학교가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공립학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보조 교육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진은 정규, 보조 교사들과 함께 영어 성경공부를 하는 중)



태국 한인 교회를 다녀와서

동남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에 관광을 가지 않는 한 갈 기회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4년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업무상 태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태국을 업무상 방문했을 때는 제가 몸담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업무의 일로 태국을 방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 못 했는데 OPTOELECTRONICS ASSEMBLY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협력업체가 태국에 연구개발 및 공장이 있어 4년 전부터 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말을 보낼 경우가 종종 있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올여름에는 방콕 시내의 묵고 있는 호텔에서 아주 가까운 태국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국 한인교회는 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방콕 시내 수쿰빗 로드 (SUKHUMBIT Rd) 21번가 OCEAN TOWER II 빌딩 13층에 있습니다. 10:30분에 시작되는 오전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10:00에 도착했는데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보안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다른 교인이 들어갈 때 같이 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건물관리자가 제가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그 시간대에 한인교회를 찾는 한국인들이 많아서인지 알아서 보안대를 통과하도록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방문자임을 알아보신 한 권사님께서 친절하게 식당으로 안내해 주셔서 커피 대접을 받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태국 한인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HAILAND)는 교회 안내지에 의하면 1990년 2월 11일 수쿰빗 씨이 4와 6 사이의 랜드마크 호텔 7층에서 23명의 성도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으며 1995년에 부임하신 김용섭 담임목사님께서 현재까지 목회하고 계시며 1999년 2월 수쿰빗 씨이 19의 OCEAN TOWER II 건물의 현재 교회를 매입하여 이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태국 한인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고,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는 예배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으며 태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세우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열왕기상 13장 말씀으로 여로보암 시대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 섰을 때 선지자를 잡으라고 가리키던 손이 말라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을 유대 선지자가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초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베델의 늪은 선지자도 여로보암과 같이 떡을 먹자고 제안하여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길을 가던 중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었는데 이후 사자와 타고 있던 나귀도 모두 도망

가지 않는 진귀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를 본 제단의 늪은 선지자는 심경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우상숭배의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던 선지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대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 선지자는 이를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 선지자의 죽음은 단순하게 사자에 물려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사자도 나귀도 모두 시체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써 모든 사람으로 보게 되는 특이한 죽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유대 선지자의 죽음으로 보여주고 이를 베델의 늪은 선지자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남은 인생, 외롭지만 묵묵히 가는 인생이 되자고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요즘 시대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고, 비록 그 길이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지키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말씀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게을리 하지 말고 또 올 한해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몸에 배게 하기 위해 매년 성경을 날마다 분량대로 읽어 통독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된 귀한 방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태국에 출장을 와서 주일 성수하게 될 때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태국 내에 몇 안 되는 한인교회이지만 태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지에서 전도자의 삶과 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태국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다 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글 임명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저희 중국 단기 선교팀은 임마누엘 교회 5명과 중국 현지 교회 성도 및 선생님 등 총 16명이 연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2016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중국 W 성 묘족교회를 섬겼습니다. 2014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AWAKENING, 2015년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성도 간의 관계회복을 통한 RESTORATION AND REVIVAL에 이어 2016년에는 전도자 교육, 교회 리더십 교육 및 분야별 리더 양성을 통한 MISSION & EMPOWERING이 주제였습니다.

주제인 MISSION & EMPOWERING에 맞춰 XEE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전도 훈련을 하였고, 리더십 세미나, 여성 리더 및 리더십의 사모님들에 대한 세미나, 찬양 사역, 기도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였으며, MBTI 세미나, 자녀교육 세미나, 남편 아내 관계에 관한 세미나 등 총 14개 사역이 3박 4일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는 이번 단기선교에서 약 3일간 18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도 훈련입니다. 10명의 묘족 교회 교인과 2명의 다른 소수 민족 성도님이 훈련을 받았는데, 뿌려진 전도 훈련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수년 내에 많은 전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중국같이 정치 상황이 항상 바뀌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도가 금지된 곳에서 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한곳에 머물며 3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서로 다른 교회 간의 연합사역이라 훈련도 같이 못 하고, 또 모든 참가자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필요한 사역이 준비되게 하시고 일정 가운데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팀원 모두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였고, 또한 지난 3년

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3년간의 사역이 마치 완벽한 하나의 완벽한 프로젝트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모두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신 일들의 열매들을 모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 정신적, 관계적, 외형적인 삶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성도님들께서 지난 바자회를 통해 후원해 주신 덕분에 깨끗한 화장실과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솔라시스템도 설치되어 이전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음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리더분들과 사역 평가회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형님교회로 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두려움과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 어린 눈길로 우리를 보셨던 분들이 이제 형님교회로 저희를 생각한다는 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2017년 사역지 및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 사역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1902년에 외국 선교사에 의해 W 성 묘족 교회로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선교사 및 중국 지도자 훈련 및 파송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쓰이며 문화혁명 이전까지 중국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더욱이 문화혁명 때 순교자를 배출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머물던 건물이 폐가처럼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로 남아 있어 저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의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리더쉽도 많이 지쳐있고 청소년들도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정치 상황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그 교회가 다시 부흥과 선교훈련 베이스 캠프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사역지를 위해 다음 3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섬긴 묘족 교회의 리더쉽 몇 분과 함께 내년 사역을 연합으로 같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를 3년간 섬기며, 그 섬긴 교회들과 연합으로, 다른 소수 민족교회를 깨우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꼭 참여하시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중국 선교의 한 영역에 동참하고 우리 팀원들 모두가 경험한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권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신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글 문병용

새로운 사역지			
미국 임마누엘 교회	현지 협력 사역자	중국 심천 주사랑 교회	기존 사역지 교회



유쾌하고 귀여운 여자씨들

매 주일 9시30분에 있는 교사, 교역자의 기도 모임이 초등부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모이는 아이들이 참된 길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교사, 교역자들에게서 아이들도 귀중히 생각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다짐이 피어오릅니다. 이미 도착해서 울동과 찬양을 연습하는 워십팀의 음악 사이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 YES! YES! YES!”, “YOU ALONE WORTHY OF MY PRAISE”, “AMAZING LOVE”와 “GOOD MORNING!” 찬양이 반복되는 사이 어느덧 10시가 되어 학년마다 Soo전도사님의 부름에 맞추어 경쟁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1장을 찾고 주보를 꼭 끼워 표시한 후 전도사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주님께 예를 표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다시 들은 후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의 자세로 전도사님의 기도를 따릅니다.



“DEAR FATHER GOD, WE COME HERE TO GIVE YOU A PRESENT: OUR HEART OF WORSHIP. FATHER, WE PRAY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SITTING HERE WOULD BE READY TO GLORIFY GOD’S PRESENCE. FATHER, WE STAND UP TO PRAISE YOU, WE STAND UP TO UNDERSTAND YOUR WORDS, AND WE TOUCH THE BIBLE EVERY SUNDAY BECAUSE WE BELIEVE THAT EVERY SUNDAY IS YOUR BIRTHDAY. FATHER, WE COME HERE TO CELEBRATE JESUS BECAUSE YOUR JESUS-OUR JESUS- IS ALIVE. SO FATHER, WE PRAY THAT YOU BE WITH EACH AND EVERY ONE OF US AS WE STAND AND WORSHIP GOD’S PRESENCE. FATHER, WE PRAY THAT YOUR PRESENCE IS THICK AND WEIGHTY ON CM SERVICE, LORD. THANK YOU SO MUCH. IN JESUS NAME, AMEN.”

드디어 좀 전에 연습했던 귀에 익은 찬양과 경배로 어린 마음들을 담아서 주님께 올립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목소리를 높여 찬양한 후 대표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아까 표시해 놓았던 다니엘서 1장을 다시 열고 다 함께 서서 말씀을 교독한 후 Soo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그들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요청한 결과가 오히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되어 왕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모두가 보는 화면에는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오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띄워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리콘 밸리에서 2016년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경험과 상황에 비교하면서 풀어나가십니다. 이어서 주어지는 “WHAT RESULT MATTERS TO YOU IN YOUR LIFE TODAY?”라는 질문에 대한 모인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나누십니다. “WHAT RESULT MATTERS TO YOU IN YOUR LIFE TODA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선택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가 아닌 지금 CM에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다음의 대표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DEAR GOD, TRAIN ME LIKE YOU TRAINED DANIEL. I WANT TO MAKE CHOICES TO MAKE A DIFFERENCE IN GOD’S WORLD, GIVING GOD RESULTS THAT POINT PEOPLE TO JESUS. THANK YOU FOR JESUS. IN JESUS NAME, AMEN”.

전도사님 말씀이 끝나신 후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학교 과목이 무엇인지를 재치있게 대답하는 새로 온 친구의 소개시간 이후 전체 주기도문을 마친 후 분반 공부를 위해 반별로 모입니다. 이어진 분반 공부에서는 ‘WHAT MOTIVATES YOU TO OBEY?’, ‘WHAT MAKES IT DIFFICULT FOR YOU TO OBEY?’ 등의 질문을 시작으로 본문 말씀 내용과 Soo전도사님의 설교내용 등을 다시 한 번 눈높이 DISCUSSION으로 되새겨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일 CM 예배를 마칩니다.

CM은 CHILDREN MINISTRY의 약자이지만 CM 부 웹사이트에 가보면 CM은 CUTE MUSTARDSEEDS라고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마냥 작고 귀여워만 보이는 아이들, 아직 동생보다는 오빠와 언니가 더 많은 아이들이지만 주일학교와 예배를 통해 큰 나무가 될 꿈을 키워가며 나름대로 각자의 독특한 향기를 피워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초등부의 사역 비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목청을 높여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김수에 전도사님과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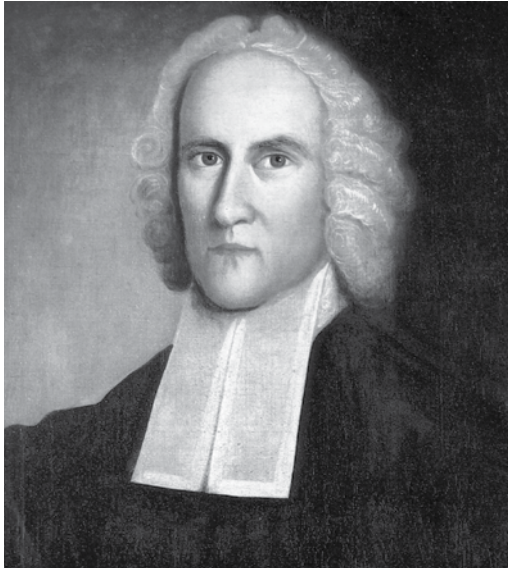
“CM IS A PLACE WHERE YOU LEARN ABOUT GOD AND HAVE FUN AT THE SAME TIME. CM HELPS ME DRAW THE PATH TO BEING A RIGHTFUL PERSON OF GOD. 초등부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동시에 재미도 있는 곳입니다. 초등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길을 그려가는 곳입니다. (CATHERINE CHO, 5학년)

“CM IS A SPECIAL PLACE TO LEARN ABOUT GOD, AND IT HELPS ME UNDERSTAND WHAT IT IS LIKE TO BE IN THE PRESENCE OF GOD.” 초등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ARIN AHN, 3학년)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데 있어 저희가 매주 기도하는 것은 초등부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23말씀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KEPC 초등부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초등부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PASTOR SOO, 김수에 전도사)

취재 한 혁 / 사진 안중훈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1703~1758)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 10월 5일 코네티컷주의 이스트 윈저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와 어머니 에스더의 11자녀 중 5번째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청교도적 경건성이 있는 목사였고, 어머니도 노스햄프턴 회중 교회 목사의 딸이었으므로, 그는 청교도적 경건과 학문에 관심을 갖도록 훈련받을 수 있었다. 여섯 살 때부터 아버지에 의하여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13세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다. 11세 때 자연계와 곤충을 관찰하고 소논문을 쓰기도 했고, 12세에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던 조숙한 천재였다. 에드워즈는 12세에 부흥 성가를 작사하였고, 거미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13세가 되던 1716년에 예일 대학에 입학하였고, 1717년에

쓴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라는 논문은 존 로크(John Locke)의 사상을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학자에 의해 연구될 정도의 수작이다. 1720년 예일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한 후 2년 더 그곳에 머물며 신학 공부를 하였는데, 바로 그 2년은 에드워즈가 자신의 회심을 체험하였던 시기로 추정된다. 1722~1723년 겨울,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통제하는 지침서가 되는 일련의 규칙들을 만든 70항목의 결의 문은 그리스도인의 임무에 대한 최고의 요약집이며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 수 있었던 것 중 복음적 선행 실천에 대한 최고의 지침서로 평가되고 있다.

에드워즈는 1727년 2월 15일에 회중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같은 해 예일대학 설립자 중 한사람인 제임스 피어폰트 목사의 딸인 사라 피어폰트와 결혼하였다. 23세인 1726년, 외조부가 섬기고 있던 노스햄프턴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1729년에 노스햄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노스햄프턴 교회에서는 그의 설교 때문에 많은 회심자가 생겼고 마을 전체 분위기가 변화되었다.

1731년 7월, 보스턴의 대중 집회에 초청받아 설교함으로써 널리 알려졌고 그의 생애에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특히 그의 알미니안 주의를 반박한 설교들이 부흥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가 노스햄프턴에 미친 영향들은 상당히 컸다. 불과 반년 만에 300명 이상의 남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200가구로 구성된 노스햄프턴의 전체 주민이 각성하게 되었는데 이 역사는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 불길기 뉴햄프셔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퍼져 갔으며 또한 코네티컷주의 많은 지역으로 타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1735년 노스햄프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책자는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적 대각성 보고서로 런던과 보스턴에서 발행되었다. 이에 대해 에드워즈의 전기 작가 드와이트는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총체적인 회개를 일으켰으며, 복음 전파가 효과 있게 수행되었는데 그것은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것 이상으로 놀랄만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목회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 첫번째는 1734~1735년 노스햄프턴에 일어난 역사였고, 두번째는 1740~1741년 뉴잉글랜드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다. 두 번째 대각성의 특징은 조지 핏필드와 사역했다는 점이다. 1740년 보스턴의 여러 목사가 핏필드를 뉴잉글랜드로 초청했는데, 그렇게 방만한 것이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다. 핏필드와 에드워즈의 우정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페리 밀러는 뉴잉글랜드에 대해 말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미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핏필드는 폭발시켰다"라고 했다.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교인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1741년 헛포어드에서 27명, 노오스 스톤턴에서 104명, 보스턴의 올드사우스교회에서는 6개월 만에 60명, 같은 도시의 뉴오드교회에서는 12개월 만에 102명이 늘었다. 1741~1742년에 항행에서 45명, 플리머스에서 84명, 미들보로우에서는 174명이 늘어났다. 에드워즈는 이 해에 수많은 설교를 하며 몸이 쇠약해졌다. 이때 그가 부흥을 주도한 세 권의 책이 있었는데 '성령의 사역 표적들을 분별함' '1740년 뉴잉글랜드의 신앙 부흥에 대한 소고' '신앙의 열정'이란 책을 남기게 하였다.

1750년 6월 23일 에드워즈는 그가 24년간 사역해 온 자신의 노스햄프턴 교회로부터 축출당하게 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재력가의 아이들이 외설적인 책을 읽었는데 그가 이것을 꾸중함으로써 야기되었다. 에드워즈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 간의 갈등은 신학적으로 확대되어 결국 교회 정회원 230명이 그의 사임을 찬성하고 반대자는 오직 23명뿐이었다. 그는 매사추세츠 변경 지역인 스타브릿지 교회의 초청을 받고 이에 응한다.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한편 한적한 환경 속에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여 그동안 밀쳐 두었던 대작들을 이곳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의 '의지의 자유'도 이 시기에 쓰였다.

1757년 9월,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선택되었으나 그의 행정 재능과 학식을 채 발휘하기도 전에 천연두로 인해 1758년 3월 22일 55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질병도 사인이었으나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고독한 목회자 노스햄프턴 교

회로부터 입은 큰 상실감과 스타브릿지에서 했던 수고로 말미암아 지쳐 있던 그를 영원한 안식처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칼빈주의자로서 에드워즈는 죽음까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에 평온한 임종을 맞이했고 그의 아내도 6개월 후에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죽은 지 약 150년이 지난 후,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의 삶을 연구해 본 결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873명이었다.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회자와 성직자 100명, 군 장성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가 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들로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 영국은 처음의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차츰 멀어져 형식적이고 복음과 멀어져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회복을 주장하였다. 당시 그의 메시지는 가뭄에 단비와 같았고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전체가 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특히 그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미국을 일깨우는 유명한 설교가 되었다.

"죄인들이여, 당신이 처해있는 위험한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의 불구덩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이제 뜨겁게 달아 있으며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그의 메시지는 죄악으로 잠자고 있는 미국을 일깨우는 타오르는 불길이었다.

정리 편집부

출처: [HTTP://WWW.MISSIONMAGAZINE.COM](http://www.missionmagazine.com)

사진 출처: [HTTP://WWW.RELIGIONNEWS.COM](http://www.religionnews.com)

전교인 성경통독의 해를 보내며

2016년도를 전교인 성경통독의 해로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구약을 마치고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한해 성경통독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교인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전에 늘 작심삼일이 되어 새해의 결심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고 읽는 분량이 밀려서 성의 없이 허겁지겁했던 성경 읽기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창세기만 읽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신약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벽을 넘기가 그만큼 어렵고 성경통독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성경일독위원회가 출범되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교인 성경통독의 해를 준비하였습니다. 성경 일독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고, 지역을 분리하고 소그룹 리더의 자원을 받아서 드디어 각 지역 소그룹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경 일독에 앞서서 전 교인의 성경책도 개역 개정으로 교체하여 단체 구매를 하였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아침에 전체 리더 모임을 갖고 다음 달 읽을 분량에 대해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강의를 들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주된 메시지 등을 요약하여 듣는 강의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소그룹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함께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더 모임에서 받은 자료와 구약 이스라엘 지도 등을 나누어 주고 다음 한 달간도 즐겁게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 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고 내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성경 구절을 카톡 등의 단체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올리고 공유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쉽게 한 구절을 찾아서 올릴 수 있었지만, 어느 날은 다 읽고 나서도 두 세 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며 한 구절을 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읽으면 하지 않았을 유익한 수고였습니다. 올리고 나서 남이 올린 것과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하는 구절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어, 이런 구절도 있었네?’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정독하게 되어 소그룹에서 함께 읽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그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바쁘게 살다

가 말씀도 잊어버리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매일 매일의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교훈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성경통독에 초점을 맞춘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일에 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설교의 본문을 그날 혹은 그 주간의 성경 읽기 본문에서 정하셨습니다. 부교역자님들이 교회에 처음 선을 보일 때도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정해진 그날그날의 성경 구절 속에서 어떻게 절기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감동과 감탄을 하기도 했지요.

무슨 일이나 3주간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게 되면 습관으로 남는다고 하지요? 우리에게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 거룩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와 성경 읽기의 거룩한 습관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눅 22:39~40)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16)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앞으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계속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 우리 교회가 목장을 재편성하여 새롭게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경 읽기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점차 큰 그림으로 이해하게 되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글 전광수 장로 (성경 일독 위원회)



루비 켄드릭
(1883-1908)

RUBY R. 켄드릭

(RUBY RACHAEL KENDRICK, 1883~ 1908)

“내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1년도 안 된 짧은 헌신

켄드릭 선교사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그녀가 한국 선교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특히 감동적인 비문으로 읽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켄드릭은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했다.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학교를 졸업한 직후 선교사를 자원하고 이후 2년간의 준비 끝에 1907년 9월, 텍사스 엡윗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미국 남 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했다.

내한 직후부터 켄드릭 선교사는 송도(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했다. 그곳에서 켄드릭은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쳤으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는 젊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고, 헌신을 통해 많은 한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1908년 6월 과로로 인해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사망했다. 켄드릭의 묘비에는 1908년 8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1908년 8월에 간행된 <THE KOREA MISSION FIELD, P.118>에 1908년 6월 19일 사망하여 6월 21일 장례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 선교를 향한 열정 넘쳐

그녀의 장례예배는 1908년 6월 21일, 허스트 박사 집에서 송도 선교사와 왓슨 목사 집례로 거행되었다. 그녀는 평소에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더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 달라고 쓰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녀의 비석에는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고 쓰여 있다. 이 비문은 그녀가 텍사스 엡윗 청년회에 보낸 편지 속 글인데, 이 편지를 읽은 많은 청년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했다.

출처: [HTTP://WWW.YANGHWAJIN.NET](http://www.yanghwajin.net)

사진 출처: [HTTP://MBLOGTHUMB3.PHINF.NAVER.NET](http://mblogthumb3.phinf.naver.net)



기도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라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로 매달린다.

아메리카 인디언 호피족은 가뭄이 들었을 때 이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 이들이 기우제 성공률 100% 신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목표를 정하면 될 때까지 하는 '끈기' 때문에 100%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다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마스터키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부어 잡고 놓지 않으려는 '끈기'다. 하나님은 왜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압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6) 하며 매달린 끈기를 귀하게 여기셨다. 전도의 열매가 없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전도자는 지치지 않는다. 은혜의 비가 내릴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한 바퀴 기도로 전쟁을 시작하라

전도 대상자를 위한 한 바퀴 기도는 성령님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마음 받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 기도 전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한 바퀴 기도는 전도 전에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이 준비되도록 만드는 특별한 전도인 만큼 전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기도 전도의 힘은 인내에서 나온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복음의 씨앗은 그냥 사라지는 법은 없다. 뿌려진 씨앗은 대상자의 심령에 자리 잡고 언젠가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운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자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막는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사탄도 지쳐 쓰러진다.

여리고 성을 돌 듯 매일 한 바퀴씩 꾸준히 돌라

기도 전도가 익숙해지면 힘들지 않다. 힘들다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 바퀴 기도는 자전거 타기와 비슷해서 일단 몸에 익으면 힘들지 않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그 비결은 '지속성'에 있다. “몰아서 하면 노동이고 규칙적으로 하면 운동이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재미있게 즐기려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운동이 된다. 한 바퀴 기도가 운동이 되려면 지속성밖에는 없다.

재밌는 전도 (김인중 저) - 중에서



TOFU SALAD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 13:44)

호산나 찬양대와 수요 찬양팀을 섬기는 한순애 집사입니다. 2014년 김하중 장로님을 모신 신년 부흥회를 앞둔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손 목사님의 메시지가 “밭을 사라” 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꼭 사고 싶은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 기도회였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에서 수요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민 7년 차 생활에서 꼭 사고 싶은 밭은 수요 기도회였기에 나의 전 소유를 팔아서라도 꼭 그 밭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특새 첫날 품었는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주 수요일부터 수요 찬양팀 저녁 식사 봉사를 할 기회를 주셨고 지금까지 3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사실 요리 실력이 신통치 않았는데 이민 3년 차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마누엘 이동우 장로님의 일터로 이끌어 주시고 3년 동안 비즈니스의 감각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내 되신 이귀연 권사님께서 저에게 주방의 열기구를 만지는 방법과 음식 만드는 비법들을 많이 알려 주셨는데 그때 갈고닦은 실력으로 임마누엘에서 수요 찬양팀 저녁 봉사를 할 수 있는 아베스의 축복을 부여 주셨음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로는 가능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신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임을 늘 고백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Tofu SALAD는 그때 권사님께서 알려 주신 것 중 하나입니다. 수요 찬양팀뿐만 아니라 호산나 찬양대와 시온, 호산나 연합찬양대 그리고 성경 통독 그룹 봉사에서도 한번씩 했었는데 깔끔하고 순한 맛이 성도님들의 입맛을 개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편집부에서 임마누엘 총성호에 실을 토푸 샐러드 레시피 부탁을 받았을 때 지난 30년간 임마누엘에서 총

Recipe

성스럽게 섬겨 오신 이동우 장로님과 이귀연 권사님께 감사의 인사 전할 기회를 주심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품어주신 두 분께 마음은 늘 있지만, 감사의 마음 제대로 전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하는 것 같아 토푸 샐러드의 순한 맛만큼 제 마음도 무척 개운합니다. 저에게 감사의 마음 전할 복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편집부에 감사드립니다.

Tofu SALAD 만드는 법

재료 두부 1/2모, 굵게 다진 (땅콩, 볶은 깨) 각각 2큰술
양념: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참기름 2큰술

기타 재료 샐러드 채소 (MIXED VEGETABLES, 상추 등등), 다진 양파 1/6쪽 (상큼한 향과 맛을 내는 비법)

샐러드드레싱 참기름 1큰술, 식초 1큰술 반, 설탕 1큰술 반, 간장 2큰술, 볶은 깨 1큰술

1. 깨갓이 씻어 물기를 뺀 두부를 으갠다.
2. 재료와 양념을 넣어 두부와 골고루 섞어준다.
3. 주먹 크기의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얇은 접시에 담아 놓는다.
4. 샐러드드레싱을 만들어 다진 양파를 섞는다.
5. 접시에 담아놓은 두부 옆에 샐러드 채소를 곁들여 놓고 샐러드드레싱을 뿌린 후 두부와 함께 먹는다.

글 한순애



인터넷과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세번째 글을 나눕니다. 인터넷이 해로운 것도 많지만, 미국 전역에서 인터넷과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사용하면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충성호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한 'BULLYING'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주로 'CYBER BULLYING'은 인터넷, 주로 SNS (SOCIAL NETWORK SERVICE) 매체를 통해 왕따를 시키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악성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연예인을 향한 악성 댓글들로 소송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피해자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의 하나인데 별로 멀지 않은 곳의 고등학교 여고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사진들이 친구들한테 뿌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고생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함으로써 15살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 아이와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최근 통계 (PEW RESEARCH)에 의하면 90%의 18~29세가 인터넷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웹사이트, 스냅챗 등등을 사용하고 있는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매체 등을 통해서 친구들 이랑 사진, 음악, 동영상, 채팅을 나누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CYBER BULLYING이나 다른 성인들에게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흔히 볼 수 있는 CYBER BULLYING 중의 하나는 은근히 채팅으로 소외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룹 채팅에서 같은 급우들끼리 나누는 공간에서 한 아이가 얘기

하면 아무도 답을 안 하고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그룹채팅룸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한 아이의 험담을 하는 방법입니다. 급우들과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던 한 아이가 순식간에 영문도 모른 채 왕따로 되어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CYBER BULLYING입니다. 아니면 굴욕스러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친구들끼리 따로 나눠서 보면서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해서 비밀을 유지해 주기를 당부하며 알려준 일들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허락 없이 이야기 해주는 경우. 어떤 경우는 파티나 슬립오버를 채팅에서 한다고 해서 가면 당일날 취소를 한다거나 장소를 옮기고 한 아이에게는 통보하지 않는 식도 있습니다. 성인들도 이 정도면 많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인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지요. 그로 인해 대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 COUNSELING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CYBER BULLYING의 무서운 점은 익명으로도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사용하는 SNS는 나쁜 친구들이나 성인들에게 그 아이의 생활패턴이 나타나므로 위험에 빠질 확률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어느 도서관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항상 30분씩 늦게 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페이스북에 올리면 친구들이 알아도 상관 없지만, 의도가 좋지 않은 친구나 모르는 성인들이 그 아이의 일정을 알고 있다면 결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SNS의 공유설정을 절대 모르는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않을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때문입니다. CYBER BULLYING의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인지를 모르고 장기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HTTPS://WWW.STOPBULLYING.GOV](https://www.stopbullying.gov) 웹사이트를 읽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전형적인 BULLYING에 관해서도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김홍배



아름다운 기도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 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 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땀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 버려. 맹물 부어 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건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 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 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

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 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GIFT)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뉘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 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에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 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 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 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계 잠갔던지 이제는 나더러 뚜껑 좀 열어 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글 송길원 목사 (가정사역자, 하이패밀리 대표)

MOM TO MOM

우리는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친히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험 자체가 간증이 되고 전도의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년간 키즈 클럽에서 봉사해 오신 MARGARET COUTTS (알비소 소재 조지 메인 초등학교 키즈클럽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알려주신 좋은 사례입니다.

A: NON-CHRISTIAN MOTHER WHOSE BOY IS HAVING TROUBLE AT SCHOOL

학교에 적응 잘 못하는 아이의 엄마

B: CHRISTIAN MOTHER 크리스천 엄마

A: HE'S ALWAYS HAD A HARD TIME MAKING FRIENDS. HE FEELS SO ALONE. IT BREAKS MY HEART.

우리 아이는 친구 사귀는걸 항상 힘들어했어요. 외로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요.

B: I CAN ONLY IMAGINE HOW HARD IT IS. WE ALL WANT OUR CHILDREN TO BE HAPPY.

얼마나 힘들지 상상만 가능할 뿐이네요.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니까요.



A: I DON'T KNOW HOW TO HELP HIM.

어떻게 도와줘야할 지 모르겠어요.

B: BEING A PARENT IS SUCH A BIG RESPONSIBILITY. MY SON DEVELOPED ASTHMA A FEW YEARS AGO AND HAD TO BE PUT IN THE HOSPITAL SEVERAL TIMES. I WAS SO SCARED! BUT I KNEW I WASN'T ALONE. GOD COULD TAKE CARE OF HIM BETTER THAN I COULD, SO I BEGAN PRAYING ABOUT IT.

부모가 된다는 데에 따르는 책임이 크죠. 우리 아들이 몇 년 전부터 천식을 앓고 있는데 몇 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너무 무서웠죠.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저보다 더 잘 보살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A: DID YOUR GOD CURE HIM?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시던가요?

B: No. BUT AS I PRAYED AND READ GOD'S WORD, THE BIBLE, I CAME TO SEE THAT GOD LOVES JOHNNY EVEN MORE THAN I DO. I CAN TRUST HIM TO TAKE CARE OF MY SON AND WORK OUT HIS PERFECT PLAN FOR JOHNNY'S LIFE. HE'S GIVEN ME PEACE AND CONFIDENCE AS I WORK AT BEING THE BEST PARENT I CAN.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보다 제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시고 그 아이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이뤄가실 것이라 믿어요. 하나님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제게 평안과 자신감을 주셨답니다.



정리, 번역 편집부



에셀나무

ESHEL, TAMARISK

아브라함은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창 21:33~34)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때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소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한 후, 평안한 생활을 하던 무렵 네게브 사막의 중앙에 있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는 왜 하필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로렘나무와는 달리 에셀나무는 좋은 그늘을 제공한다. 뿌리를 깊게는 100m도 더 깊이 내리고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 또한, 에셀나무는 잎이 짜다. 짠 잎의 성분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녘에 이슬을 맺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새벽녘에 듬뿍 내린 이슬은 해가 뜨면서 서서히 증발한다. 한낮의 뜨거운 광야에서 에셀나무 밑 그늘은 이슬의 증발열 때문에 주변보다 10도 정도 온도가 낮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이처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런 에셀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안식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전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정착했던 가나안은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던 곳이었다. 온갖 잡신이 판을 치던 가나안 문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사라의 이야기와 많은 간증을 들려줬을 것이다. 진정한 신은 엘로힘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에셀나무 밑에서 선포했던 것이다.

사울은 왜 에셀나무 밑에서 다스렸을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이스라엘은 원래 여호와의 왕으로 섬기며 열두 지파가 동맹을 유지하는 지파 체제였는데, 블레셋이 등장하며 이방 제도인 왕정을 받아들였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지파 조직은 그대로 있었다. 후에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의미의 중앙집권적 왕권이 세워졌다. 사울은 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다스렸고 성경에는 그가 ‘기브아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삼상 22:6) 예루살렘 북쪽 8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다. 에셀나무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광야의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다. 북쪽 베냐민 지파의 산지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없는 나무이므로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사울은 친척 아브넬을 제외하면 지휘관도 없었고, 호화스러운 궁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당시 왕궁도 없던 사울은 고향 기브아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다스렸다. 사울 왕과 몇 안 되는 지휘본부가 있는 에셀나무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을 것이다.

만나와 에셀나무의 이슬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16:14)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 16:31)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다.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온 양식이 아니다. 새벽녘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이슬이 마르면서 생긴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만나의 정체를 밝히면서 에셀나무와 관련된 재미있는 학설을 제시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와 광야에서 수많은 이슬방울을 맺는 에셀나무를 연결해서 생각한 것이다. 에셀나무의 잎을 먹고 사는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은 해가 뜨자마자 바로 건조되는 액체 형태의 탄수화물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꿀 섞은 과자’라고 하는 만나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정리 편집부

출처: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중

복된 일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꽃에는 이슬이 있고
내 눈에는 눈물 있으며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으니
이 어찌 아니 기쁘랴

무엇을 근심하랴
위에는 바라볼 파란 하늘이 있고
아래는 든든히 설 굳센 땅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어찌 아니 평안하랴

눈을 뜨면
산과 들, 새와 나무, 풀과 바람
서로 만나 노래하고
내 곁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있고
내 가슴에는 사랑이 있으니
이 어찌 아니 감사하랴

(김소엽 시인,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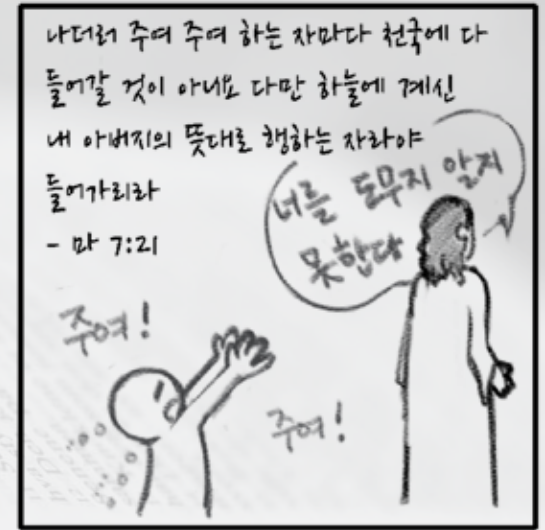
크리스천 명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함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 존 파이퍼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PASTOR JOHN PIPER



글/ 그림 정용익

상추의 효능, 천연 건강제

‘빈혈, 불면증, 피로회복’에 좋아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상추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약재로 써왔던 기능성 채소로, 동의보감에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기가 막힌 것을 통하게 한다고 나와 있다. 상추는 비타민 A, B 군이 풍부하고, 철, 칼슘, 엽산 등 미네랄도 풍부하며, 상추의 쓴맛을 내는 락투신 등의 성분이 신경안정과 통증 완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눈 건강에 도움

비타민 A와 루테인 함량이 높는데, 한 주먹 정도만 먹어도 1일 권장섭취량인 20mg을 충족할 수 있다. 비타민 A와 루테인 성분은 눈의 신경을 보호하고 노화 예방과 안구건조증 등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빈혈 예방

상추에는 필수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과 철분, 엽산 함량이 높아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특히 영양이 부족하기 쉬운 임산부에게 추천되며, 상추는 모유의 양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 안정과 불면증에 도움

상추에는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줄기 속 투명한 흰색의 액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진정효과와 최면, 진해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을 준다.



또한, 신경안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

여드름과 피부 미백에 도움

상추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가꾸어준다. 비타민A, C 그리고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어 피부 미백 및 탄력 효과가 있고, 비타민 A는 세포 재생을 도와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시켜며 여드름 등 피부 문제에 도움을 준다.

피로회복 천연 건강제

상추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신진대사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해독 작용을 도와 몸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다. 숙취로 인한 두통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상추의 구입과 보관 요령

상추를 고를 때는 상처나 흠이 있는 것은 피하고, 세척된 것은 냉장 보관된 것을 사야 한다. 싹 채소를 육류, 생선 등과 함께 구매할 경우에는 각기 다른 봉지에 담아 확실히 봉해 채소가 육류 핏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관할 때는 흠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관하되 세척하였을 경우 밀폐 용기나 비닐 백 등에 담아가 급적 공기를 차단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실 보관 온도는 5℃ 이하가 바람직하며, 채소·과일 전용 서랍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2/3만 채우는 것이 좋다. 가급적 3일 이내에 섭취하고, 수시로 체크 하여 곰팡이 발생이나 진물 발생 등이 의심될 경우 먹지 않도록 한다.

상추 잔류 농약, 세척하는 법

1. 세척 전에는 먼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특히 육류를 만진 손으로 싹 채소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2. 상추는 2L가량의 물에 2분 동안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씻은 후 흐르는 물에 30초가량 씻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에 담가둘 때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조금 넣는 것도 좋다.
3. 상추가 시들었다면 시든 상추를 식초 한 두 방울과 설탕 2티스푼을 탄 물이나 얼음물에 담가두면 싱싱해진다.

출처 Hi Doc (매거진 하이닥)

새벽

조용하다.

은혜를 사모하는 발걸음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듯 하고 새벽은 아직 별을 붙잡고 있다.

어제 저녁 사무치는 푸르름을 남기고 멀어진 태양이 푸르름을 앞세운다.

강대상 앞에서 외롭던 꽃들은 애정어린 사랑을 얻는다.

다시 캄캄해진 예배당에서 가만히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숨을 쉰다.

아버지.

아부지 저 왔어요.

어느덧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밝아진 이곳에서 하나되어 찬송을 부른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찬송이 마음에 남는다.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를 것 같다. 그 날 입을 성경말씀 중에 한 단락이 오늘 새벽예배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비춘다.

공간을 채우는 소리와 함께 그 은혜 앞에 마음을 연다. 내 마음을 부끄러워 숨겨왔던 감정들을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분 앞에 나를 본다.

들어주시는 그 분께 들려드린다.

울어도 본다.

곁에 있는 그분은 말은 없으시다.

그분이 보인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마음에 가득하다.

오늘의 일상에 그분의 지혜를 채운다.

바깥은 시끄럽다.

하루는 새벽에 은혜와 함께 시작된다.

박기한 목사
(남부 평원 담당)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종은 박물관에 가면 그곳에는 꼭 한두 점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의 삶을 그림이나 예술에 쏟은 작가와 그림 중에서 오늘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1.8-2.4m 의 이 거대한 그림은 빛의 어둠과 밝음 강약을 조절하여 집중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네덜란드 출신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며 이 그림은 그가 죽기 2년 전에 가족을 잃은 아픔과 화가로서의 명성도 떨어졌었을 때 그려졌다고 합니다.

작품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둘째 탕자 아들, 큰아들, 멀리 어둠 가운데 서 있는 한 여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6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작품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 속에서 우리는 자식으로 인한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다정한 손길로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손은 렘브란트의 작품 의도가 매우 잘 나타난 것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손은 매우 강하고 근육질로 묘사되어 있어서 마치 아버지의 권위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에게 나의 은총을 베푸노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주듯 그의 오른쪽 어깨에 얹어져 있는 반면 오른손은 섬세하며 부드럽게 묘사되어서 마치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어머니의 손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탕자를 아무 말 없이 껴안는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림에서 인성과 신성, 부서지기 쉬운 연약함과 강인함, 늙음과 영원한 젊음이 함께 표현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비가 육을 취한 의미와 화해와 용서, 치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방향 가운데 있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었던 그는 지금 아버지 품 안에서 얼마나 평온할까요. 그동안의 철없음과 어리석음과 아픔이 그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다가갔을까요. 그저 말없이 안아주시는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렘브란트는 자신을 이 죄 많고 방탕했던 삶의 둘째 아들에 투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듯 보입니다. 그와 대비 되어 붉은 옷과 화려한 모자를 쓴 채 지팡이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와 잃어버렸던 동생을 바라보고 서 있는 형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서인지 그림에서도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작품에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 외에 어둠 속 기둥에 기대서서 구경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며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시, 무정과 정죄함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품을 통해 렘브란트가 만난 하나님의 얼굴은 곧 자비와 사랑이신 아버지였습니다. 죄 된 인간에게 언제나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저는 탕자이지만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삶을 허비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그림 속 아들의 모습 그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진' 탕자였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들로 허랑방탕한 영적인 가출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정죄하며 의를 내세우는 큰 형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제삼자의 눈으로 보며 판단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렇듯 동생 못지않게 형의 비유이기도 하며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에 쓰이는 형용사 'PRODIGAL'은 "무모할 정도로 씩씩이가 헤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탕자의 경우엔 무모하게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고후5:19)라고 쓴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심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우리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지금, 이 순간 호흡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글 한연정

참조: 블로그 BRUNCH.CO.KR, 인터넷검색, '탕부 하나님'(팀 켈러), '그림 성경 이야기'(김영준)

더 중요한 하나님

안녕하세요. 비전 청년 이건희 형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전 샌디에고 College에서 공부하다가 올 8월 산호세 주립대로 트랜스퍼하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저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학업과 건강 문제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등 너무 많은 일이 저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 14: 27)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초 붙잡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즉시 일러 가라사대” 라는 말씀 중에 ‘즉시’라는 말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냥 머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즉시 일러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의 백합화와 날아다니는 새들과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간증

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학생 3년 동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산호세에 오기 전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드린 그 자리에서 산호세에서 UCSD로 트랜스퍼해 온 임마누엘 비전 청년 박명철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명철이를 만나는 날 아침에 QT할 때 여호수아서 15 : 20-63을 묵상하면서 유다 지파의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정해주는 하나님이 아직 산호세에서 머물 곳의 정해져 있지 않은 나를 위해서도 이미 예비하셨으리란 확신을 했고, 산호세에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있다고 기대하는 마음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샌디에고를 떠나기 석 달 전 5월, 갑자기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근시라 시력은 좋지 않았지만,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눈을 떠 보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왼쪽 눈 망막



이 전부 다 벗겨졌다고 수술을 빨리 받지 않으면 시력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앞당겨 모두 치른 다음 5일 뒤 바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한국병원에서 망막박리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두 건의 큰 수술을 앞두고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막 9: 47)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눈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음란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전에 상황과 문제가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너무 커 보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바라보니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만 보였던 거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어떤 고난들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8월에 산호세에 오자마자 또 다른 어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호세 주립대 입학이 거절된 것과 또 하나는 두 번의 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노안이 온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수술 때문에 연기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오류가 발생했는데 저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학교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샌디에고로 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산호세에서 다른 학교를 통해 더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며 알아보던 중 하나님의 인도 하심 가운데 산호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두 개의 학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산호세 오면서 기대했던 은혜처럼 이곳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 하심 속에 명철 형제

가 9월에 샌디에고로 가면서 저는 임시로 있던 홈스테이를 떠나 가까운 명철 형제 집에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게 되는 은혜도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의 일어난 일들로 죄송한 마음이 큰데 제가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정착하는 이 한 달 동안 엄마까지 담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다 소식 듣게 되었을 때 저에게 거듭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겸손한 척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많은 일을 하며 성경도 선교도 새벽기도도 나름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나에게 계속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힘든 환경 속에서 욕기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 생각나게 되었고 내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랑 전화하던 중 “엄마는 관찮으니깐 아프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게 아닐까... 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만, 부모님은 그런 것 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에게 뭘 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니 나에게 생긴 일들이 감사하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음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빛진자인지 지난 몇 달간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글을 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글 이건희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증인에 대한 간증문을 부탁받았을 때 저희 가정은 10살 된 딸아이의 바이러스 감염에서 막 회복을 얻은 때였습니다. 서린이는 10살 생일 즈음에 갑자기 고열과 온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선 그저 감기라며 집에서 쉬면 된다고 했는데 그 날 이후로 아이는 열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기 시작했으며 해열제 복용으로도 38도가 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라부라 second opinion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저 감기가 아니라 EBV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으며 이 바이러스가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에겐 그저 지나가는 바이러스니 기다리면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로 피검사로 간 기능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나쁜 경우 간에 침투해 초기 감염 증세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에 의사 선생님께 전화가 왔고 놀랍게도 감염이 진행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왼쪽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징후인데 그건 비장 쪽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비장까지는 침투하지 않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아이가 갑자기 왼쪽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증세를 발견했기 때문에 해열제도 많이 먹이면 안 되는데 아이의 열은 41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그날 Urgent care 소아과 의사와 통화를 하면서 아이의 열이 너무 심해 해열제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간 손상을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아이가 왼쪽 배가 아프다면 빨리 Emergency로 가야 한다. 만약 비장이 부어서 터진다면 그럼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주 짧은 단어들의 나열일뿐, 많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꾸 나쁜 쪽으로 발전되는 증상이 저로 하여금 지치게 했습니다. 그때, 강한나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이가 아픈 소식을 알고 계셨던 집사님은 아이의 상태를 물으시곤, “이건 기도해야 할 일인 거 같아요, 중보기도 팀에

연락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도가 안 나오고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는 모습에서 저는 송구스럽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팀에서, 교회 예배, 목사님 중보 기도팀으로 확대되었고 손원배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면서 수요일 예배 기도 때도, 새벽기도 때도 중보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일이 커진 거 같습니다. 부끄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한 수요일 오후, 서린이가 해열제를 먹고 열이 38도 이상 오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애 아빠에게 맡기고 수요일예배에 갔을 때 목사님의 말씀대로 기도 제목에 “서린이가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도록”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위해 소리치며 울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가깝게 지내던 친한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이가 아프다고 들었다고. 양로원 봉사를 하시던 권사님들께서 봉사 전 함께 모여 서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노라고... 아이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린이는 그날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일 저희 부부는 서린이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서린이를 보자 많은 사람들이 제게 기도했노라며, 하나님이 아이를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우리 부부를 통해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글 최인애



Weak and Strong

연약함과 강함

When graduation rolled around in June, I had not considered too much about how my faith would be challenged in college. It was very easy to push those worries to the back of my mind when all everyone would say to me after graduation and into the summer months were “Congratulations! You must be so excited for college!” or “You’re going to have such a great time!” In all of the excitement and relief that I had finally finished high school, my head was easily filled with thoughts similar to those of my non-Christian friends. Some of those thoughts included the following: “College is a time for me to become who I truly am” and “I’ll finally be living as an independent adult, making my own choices.”

Throughout the past month before I move-in to college, I am becoming increasingly aware of how wrong these thoughts were. For myself, as a Christian, college is not a time for me to ‘become who I truly am,’ but it is when I should root myself firmly in the identity that I am a child of God -

조업식이 있을 6월쯤에 저는 대학교에 가서 신앙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축하해! 대학교 가는 것 참 신나겠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응원 받느라 그런 걱정은 뒤로 미루기가 쉬웠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쳤다는 안도와 신남에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 “드디어 어른이 돼서 모든 것을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구나!” 그리고 “대학교는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에 흥분을 가라앉히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저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학교라는 기간은 나 자신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벌써 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해 놓으신 것을 믿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저를 찰흙처럼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었지만, 다른 친구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제가



- I do not pave or create my own identity because my God, my Father has already decided who I am. He has and is still shaping me and molding me like clay-- so I trust Him to make me into a tool that He can use to glorify Himself. Unlike my friends, though I am now an adult, I do not live independently because I should be completely dependent on God. This means that the choices I make are not mine, but they are the choices that God has guided me to, through prayer and obedience. Though my non-Christian friends have expectations that are deemed as ‘right’ or ‘proper’ by the world, as a follower of Christ, the realization of the secular nature of those expectations was only one small fight among the bigger spiritual war that all Christians must face.

One thing that God has been reminding me throughout my faith, and even more so as I face college, is this: I am not a strong Christian, but I am a weak Christian with a strong God. I cannot live on my own because without Him, I would have no purpose or direction. Without a Savior, I would still be drowning in blind, filthy sin as my heart would become hardened as stone. Without my Father, I have nowhere to turn to for overflowing, selfless, humbling love that accepts my flaws and mistakes. Without my God, I am truly weak and worthless. This is why as disciples of God, we must cling onto Him with faith, and know that He is the Lord our God. In Him, we find our worth and purpose. With this new chapter of life, I do not want to simply walk in faith and ‘know’ that God is good, but I want to trust that He is good. I desire for a deeper relationship with Him that leaves an unquenchable thirst for more of God in my life. But I know that I cannot do any of this on my own, because I am weak. So I pray to my strong God to provide the strength and endurance to run this race with Him.

By Diane Hahn



결정을 직접 하기보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은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결정과 꿈을 따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과 맞대고 영적 싸움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크리스천이다, 하지만 난 연약할 때 강함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하나님 없이 제 의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더라면 저는 계속 연약하고 가치 없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얽매어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좋으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저의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갈망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힘써 이 세상을 이겨 내면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기도합니다.

DIANE HAHN (한다영) / 번역 안혜원

베트남을 사랑하시고 베트남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롬! 비전 청년부 김용수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저의 첫 선교지이며 2010년에 처음 다녀온 후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을 향한 마음을 부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이 베트남 선교를 다녀온 지 4번째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트남 땅에서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또 하나의 도구로 불러 주셨을 뿐, 하나님은 베트남 땅을 사랑하고 축

복하고 계셨으며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베트남 단기선교 주 사역 중 하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캠프입니다. 교회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영어캠프 사역은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영어로 찬양을 부르는 것과 울동까지 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데도 베트남 청소년들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 은혜받는 지체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무엇인가를 하러 베트남 땅으로 향했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베트남 청소년



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었고, 그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그곳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함께 기도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베트남을 더 사랑하고, 그 땅의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 사랑이 저를 섬김의 자리에 세워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2010년 첫 선교 때 베트남 현지 고아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지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그들과 함께 바닷가와 수영장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 아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한 번에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후 고아원 아이들이 특히 더 생각나고 많이 보고 싶었는데

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그 아이들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삶에 어려움과 상처가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고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한 채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한다든지, 성인이 되기 전에 고아원을 떠나 자신의 삶을 혼자 개척하려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많은 분이 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베트남으로 계속 보내주신 거라 믿습니다.

아직도 베트남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르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베트남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베트남 땅을 위해, 그 나라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김용수

네, 저는 살아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나누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본 내용을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의 이혼입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얼른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작년에 우리 부모님도 거의 이혼할 뻔했어요.” 이어서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젯밤에도 두 분이 심하게 다투셨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고 권했습니다. 분반 공부 후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중에는 아까 얘기를 했던 아이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십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의 아픈 부모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초등부를 졸업하고 청소년부에 진학한 아이들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아이도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무척 즐겁습니다. 마치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샘솟는 기쁨과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십니다. 때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며, 따르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신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성경 말씀을 암송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반짝이며 생각이 돕니다.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글 서경의

말씀 안에서 견뎌가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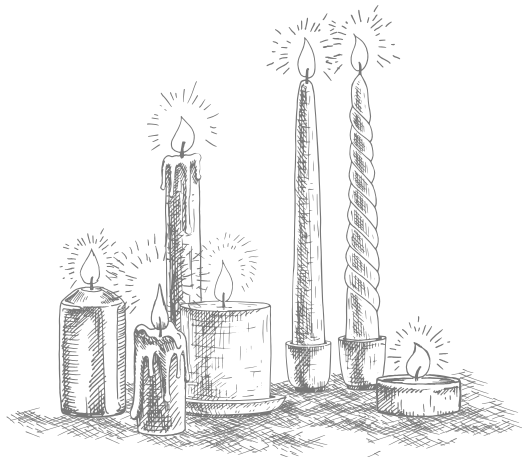
모태 신앙으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통독하긴 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글자만 보았지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고, 참 편협된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는 너무 당연했던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다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러기에 2003년부터 시작된 LA 근처의 Thousand Oaks에서의 기러기 생활은 제게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교회를 정하고 너무 하고 싶었던 찬양대에 조인하고 교회 안에서의 성경공부, 또한 동네에서 여성들을 위해 오픈한 동네 성경공부 등 맘껏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아는 말씀대로 사는 일은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공부가 우상인 가정에서 자란 남편보다 두 아들을 더 잘 키워보겠다고, 공부와 신앙, 인격까지 완비한 아이들로 키워내 보겠다는 저의 생각이 교만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찬양과 성경공부에는 열심이면서 기도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될 즈음이었던 2007년 말 정도부터 시작된 큰 아들의 사춘기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 그냥 제가 원하는 것들의 나열이 아닌, 제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뜻에 아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기까지 3년, 그리고 2년이 더 지나 아들의 사춘기가 끝났습니다. 부모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들도 대학 가서는 교회를 떠난다는데, 큰아들은 동성연애자

룸메이트를 만남으로 자기 발로 교회를 빨리 찾아갔고 건전한 친구들과 틈에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평평 울었던 2012년 Thanksgiving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몇달 후, 갑자기 불러오는 배로 찾았던 내과에서 난소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그동안 읽고 배우고 생각했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볼 자세가 되었다는 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처음으로 모태신앙의 힘을 느꼈습니다.

항암제가 듣지 않으면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벗어나 3번의 항암으로 암의 크기를 축소한 후 9시간의 수술과 또 3번의 항암, 그다음 해 다시 재발하여 약을 바꾸어 7번의 항암, 산호세로 이사와 스탠포드에서 일 년 표적 치료... 2013년부터 3년 내리 치료만 받았습니다. 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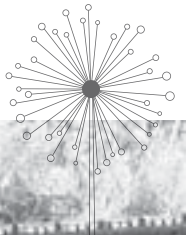
로 얻은 왼쪽 다리의 림프부종,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암... 평생 걱정 없이 살기는 글렀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 특히 믿는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조언을 해주십니다. 저의 삶이 옳기를 읽는 기분이지요. 그래서 아픈 이후에 통통 때 마주하게 되는 옳기 내용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히스기야 왕은 아플 때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30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편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곳에서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 헛갈리고 갈피를 못 잡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또한 믿음이 없어서 그 병에서 완치되지 못하고 재발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제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지금 어떤 모습 이든 간에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를 통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가까이에 두 아들이 학교 다니는 것 외에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산호세로 1년 반 전에 이사와 아픈 몸으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 교회도 정하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오랜만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암 환우들을 위한 베데스다 부도 있어 따뜻한 보호를 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올해 초 1부 찬양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앞에 나가 찬양을 드리고 나면 온몸에 몸살이 온 것처럼 아파 예배시간 내내 팔을 주무르곤 했는데 이전 예배 후 1시간 반 연습에도 꽤 고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엔 둘째 아들이 동네에서 인턴을 하게 되어, 아들은 바이올린으로, 전 노래로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도 너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또한, 올 한해 성경통독그룹으로 엮여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기쁨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날도 있지만, 그동안 몇 번을 읽었어도 간과하고 지나갔던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는 재미, 또 늘 읽어도 잘 모르고 지나갔던 구절이 갑자기 확 이해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시 찾아올 병에 대해, 평생 낫지 않을 다리에 대해 두려움은 가끔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에 무서워 떨기보다는 지금 이 정도의 건강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더욱 단단해질 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글 권정희





‘한목소리로’



성경에서 ‘찬양’ 혹은 ‘찬송’이란 말을 사용할 때에는 단순히 음악적인 분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존경의 마음으로 칭찬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찬양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많은 시편에서 우리는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목소리나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음악적인 재주를 가지고 많이 표현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의 동작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의 손을 높이 든다든지, 손바닥을 마주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하는 표현들이 다 찬양에 해당합니다. 한국인이면서 장로교인인 분들은 벌써 부담스럽고 멋쩍고 쑥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찬양’이란 단어에는 깊고도 넓은 표현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떠올라서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먹거리나 볼거리, 아니면 즐길 거리들만을 떠올리는 것보다 다양한 ‘찬양거리’들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 보세요. 삶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은 좁은 의미에서 두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음악으로 표현하는 ‘찬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악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왜 그리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음악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4장 가인의 자손 이야기에 나타나는 ‘유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입니다. 21절에서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센 반기를 들고 오히려 인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데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는 거꾸로 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도 음악적인 부분에서 세상의 흐름은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악적인 면에서 찬양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바로가 보낸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 이 감격을 함께 표현합니다. 이 노래는 집단적인 경

험의 표현이었습니다. (출 15:1) 회중이 함께 하는 찬양의 집단적 경험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주권도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출애굽 경험을 통해 집단을 이루고, 광야에서의 공동 생활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직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로 인해 민족의 기초를 이루고, 여호수아라는 참신한 후계자를 통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전문적인 음악가들과 찬양 대원들, 오케스트라의 웅성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발로부터 시작된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실력과 현란한 기술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수금을 불어도, 통소를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곡의 마지막 ‘카덴차’(편집자 주(註): 협주곡에서 반주를 멈춘 동안 화려하고 기교적인 연주를 통해 독주 악기를 과시하는 대목)에서 어떻게 나의 독창적인 기술을 청중에게 마음껏 표현할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찬양은 개인의 현란함이 아니라 ‘집단적인 경험’에서 나와야 함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목소리나 악기로 표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고 함께, 그리고 ‘한목소리로’ 일구어내는 공동의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나 미리암이 멋진 시로 찬양을 작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가사를 외우게 하고 멜로디도 함께 불러 보아서 모두 외우도록 하는 많은 노력과 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만 잘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부르기 어려운 수준 높은 찬양만 고르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또 뻘하고 지루한 찬양으로 회중의 기대감을 떨어뜨리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남들이 모르는 찬양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치세요. 반복하고 함께 배워 가세요. 자꾸 부르고 또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외우게 했던 땀 흘리는 누군가가 있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글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담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2014년 조지아의 아틀란타에서 산호세로 와서 초기에 놀란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비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매일 같이 느끼는 성령의 단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찬양팀에서 찬양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은혜받는 시간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물론 누구든 살면서 생각지 못한 여러 굴곡이 있고, 지친 시간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온전한 길로 이끄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가을소풍 때 일입니다. 전교생이 80명 정도인 경상남도의 한 시골학교에 다닐 때였죠. 소풍을 갔는데 장기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 친구들이 하나둘씩 노래와 춤으로 흥을 한껏 돋우기 시작했습니다. 담다디 춤은 그 당시 최근 사이의 '강남스타일'과 같은 동급의 흥행을 하던 춤과 노래였지요. 사실 전 가요를 아는 것도 없었고, 분위기가 한참 올라가 있는데, 어린 마음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차례가 돼서 친구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흥이 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게,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상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끝까지 부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계속 불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린 제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

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과 선생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느끼면서, 한없는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아닌 학교 소풍에서, 시골에서 교회도 거의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제 노래를 듣고,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손뼉을 다 함께 치고 있었습니다. 장기자랑이 끝났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이 "네가 부른 노래 참 좋아.", "교실에서 다시 불러줘". 당시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찬양은 따사롭고 온유한 성령의 바람처럼 힘이 있다는 것과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내가 사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주찬양 11집 '전신 갑주를 취하라' 중)

1997년 여름 어느 주일 날, 논산 육군훈련소의 내리찍는 태양 속에서, 교회에서 나와 내무반으로 걸어가던 기억은 아직도 지금의 일처럼 생생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 감각의 순간이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 지체들이 뮤지컬을 준비해서 위문공연을 왔고, 마지막 찬양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한없이 울고, 군 생활을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사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군입대 전, 대학 시절에 IV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한국 기독교학생회)에서 많은 서적을 읽어 가며 하나님을 지성으로 알아가려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성의 눈으로 호수처럼 명료하게 바라보고 싶었고, 선과 악을 판별하는 지적인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성장을

할 수 있고, 신앙의 골격을 다질 수 있는 시기였지만, 영성으로 눈물을 흘리기에는 부족한 제게, 입대하자마자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제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길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16)
지금도 그때의 감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광야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늘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글 김충만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작은 존재입니다

간 증문 부탁을 받고 먼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우리는 모두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현재 상황에서 바라보는 저희의 모습이 꽤 부족하여 아무래도 완성된 간증문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간증문을 적어야 할 것 같아 양해를 구합니다.

한 교회의 제자반을 통해 만나게 된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줄곧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결혼한 지 약 1년 반 만에 소중한 딸아이가 탄생했고, 한국을 떠나오기까지 약 2년 반의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각각 이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세 번의 이사가 있었고, 새로운 집에 이사한 지 4달 만에 다시 미국으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니 참 간단하고 단순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하나하나 겪어 나갈 땐 무척 다사다난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계획(?)보다 일찍 생겨난 아이 덕에 친정 부모님 곁으로 이사한 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로 온통 곰팡이가 가득차, 결국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몇 달 동안 집주인과 고전한 끝에 근처에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또, 출산의 시기와 맞물려 남편의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 전 직원 월급의 30%가 삭감되었고, 오랜 시간 고민하던 남편은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인 남편에게 이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늘 밝기만 했던 남편은 점점 지치고 피곤한 기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은 다시 매일 기도했고, 소리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막막한 마음을 뒤로하고 저 또한,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지인의 회사에서 매니저를 찾고 있다며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오피스에서 미국 본사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것이 저희 가정의 이곳으로 옮겨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9개월 만에 복귀한 한국지사에서 저희 가정의 상황을 듣고는 미국 본사로 재입사를 도와 미국으로 이주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직이 어려웠던 그 시기를 되돌아보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남편은 그것이 자신의 교만이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God's way is always the best way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ER 5:6~7, NIV)

저는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늘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꼭 저만 겪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저 자신이 다사다난한 편인 것 같다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주신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했던 예전의 모습에서, 매일 감사함으로 직장을 섬기려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매번 겪어야 했던 고된 이사의 과정에서 생겨난 맷집은 부모님 도움 하나 없는 이곳에서 집을 구하고 자리 잡기까지 참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 소중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양육의 과정 또한 저희 부부가 함께 견디며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참 귀중한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 또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고된 순간들마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영적 성숙의 과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적지 못한 '성숙해야 할 그리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저희에게겐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매일 매일 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희망이 있음은 이러한 과정에서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이며, 늘 저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앞서 보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좀 더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글 신현정



기도의 전사들

1999년 손원배 목사님 부임 후, 성령 부흥을 위해 당시 예배 위원장이셨던 김모경 장로님의 인도로 40여 명이 모여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했으며 이것이 철야 예배로 진전되면서 2004년 산상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현 위치의 교회 헌당 예배 후, 매월 둘째 주일 3월~10월(1:30~ 5:30 PM)은 북가주 금식 기도원, 10월~2월(1:30~ 4:00 PM)은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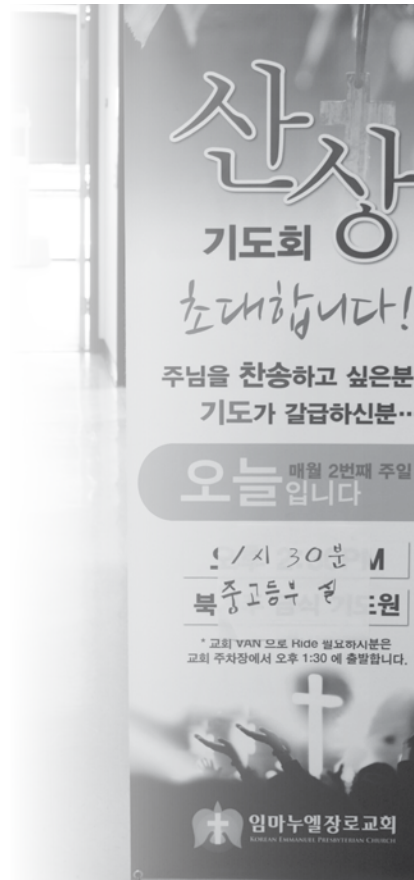
초창기 산상 기도는 김모경 장로님께서 말씀과 찬양, 기도 인도까지 모두 하셨지만, 지금은 2부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네분의 교역자들(김혜경 전도사, 윤정숙 전도사, 김백미 전도사, 이수복 목사)이 말씀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평균 20~30명 정도가 모여 올하는 특히, 교역자들의 이동과 부임, 성경 일독으로 인한 성령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상 기도팀은 교회의 여러 부분(예배, 선교, 교역자, 영적 리더십, 미국, 조국, 북한, 2세대, 환우 등)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 마지막 시간에는 1:1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다음 달 모임에서 서로의 기도 응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상 기도팀의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차세대 젊은이들의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연세 드신 분이나 권사님, 장로님들만 가는 곳이라는 통념을 깨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세

계 IT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 둘러 쌓여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 북가주 지역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 성령 부흥을 경험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을 일깨우고 참여시키기 위한 점차적인 홍보, 기도 세미나, 사역 위원회별 참여 등 기도에 도전을 심어줄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도라고 하면, 초신자분들은 믿음 생활이 오래된 분들이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상 기도팀은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짝 기도를 통해 서로 한 달씩 중보하며 교제할 수 있어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며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아이들도 기도원의 자연 속에 뛰놀며 CHILD CARE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산상 기도팀은 기도팀원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에 갈급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오



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특별한 이유라면, 부르짖는 기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이나 기도 모임 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갈급한 기도일수록 더욱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 성령 체험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갈급한 마음 하나로 산에 올라 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안수받을 수 있고 병 고침과 성령 충만을 받으며, 가정이 회복되는 등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을 느낍니다.” (김모경 장로) “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간 산에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도 축하는데, 자연 속을 거닐며 마시는 공기는 마음을 한층 힐링시킵니다.” (윤정숙 전도사)

초창기에는 멤버 대부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신 분들이라 항상 기복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었는데, 현재는 기도의 열정이 뜨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 모임 인원수에 따라 모임의 가치가 평가될 때 힘이 들기도 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기도 자리를 떠날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한 예로, 2015년 초 산상 기도팀 해체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팀을 동역자로 보내 주셨고, 기도의 일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가정이 안수 받고 회복되어 목자로 헌신하는 것을 보았을 때 8년간 태의 열매가 없었던 한 자매의 중보 기도 요청이 몇 달 안 되어 응답된 것도 기억에 남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네게 응답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33:3)

취재, 사진 한연선

기드온의 후예, 60분 주일 주차팀

주일 아침을 달려 교회에 당도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차량의 길 안내와 주차 인도를 해주시는 60분 주일 주차팀 여러분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분 중에는 젊은 집사님도 계시지만 베테랑(75세~ 85세) 팀원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차 관리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코너의 취지는 부서 소개인데 이번에는 단순 부서활동 내용과 팀 구성 정보를 넘어서서 우리가 모두 같이해야 할 고민과 문제점, 애환과 그 해결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나아가야 할 방안을 들은 대로 이 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잠잠할 만하면 들리던 주차장 도난 사건과 그 방지를 위해 예배 중 주시던 주의사항 광고들이 생각나시지요? 올해 들어서 그것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진 것의 배후에는 개인의 안전을 무릅쓰고 교회 주변을 점검해 주시는 주일 주차팀이 있습니다. 주차팀원들이 교회 주차장을 구석구석 살펴시다 보면 아직도 종종 모자를 꼭 눌러쓰고 허름한 차 안에 앉아있는 수상한 젊은이들을 발견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주일이면 새벽같이 오셔서 차량 위에 노란불을 켜고 도난 사고 방지를 위해 순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고령 팀원이신, 이금재 집사님이십니다. 요즘같이 총기사건 뉴스가 빈번한 시기에 그런 차량에 접근하고 "May I help you?"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요? 그들이 모두 안 좋은 의도와 계획으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일 주차팀의 활동 이후 그런 도난 사고들이 사라진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낸 용사 기드

온이 자주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60분 주일 주차팀에는 모두 8분의 자원봉사자가 계십니다. 팀원들은 입구에서 차량 안내를 하는 것 외에 노약자/ 새 신자 등을 위한 주차 지원과 순찰, 그리고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일(짐 운반도 돕고, 배터리 충전도 돕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와 드리는 봉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차장 크기와 예배시간 수를 고려하면 8명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입니다. 관계자들의 의견으로는 최소한 20분의 봉사자들이 있어야 예배당 앞, 뒤에서 원활하게 취지에 맞추어 할 수 있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섬겨 봐야겠다는 분들의 적극적인



인 자원을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주일마다 30분씩만 봉사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기드온의 후예와 같이할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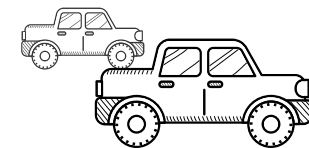
주일 주차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빈번히 다니는 주차장 내에서 과속하시는 분들, 노약자들의 주정차를 도와드리느라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리면 보는 앞에서 거부하시는 분들, 짐이 많아서 "도와 드릴까요?"하고 물어보면 도움을 불편해하시는 분들, 새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 신자 주차 칸에 버젓이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듣고 있다 보니 인터뷰하는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는 부끄러운 사연들은 예의를 존중하는 한 국민 후예로서, 서로를 형제자매와 가족같이 아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 듣고만 있기에는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분 주일 주차팀에서 몇 가지 바램을 말씀하겠습니다.

1.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일찍 오시는 분들은 멀리 주차하시고, 건물 근처 주차장에는 주차를 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주차 공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차장부터 화기애애한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4. 2017년에는, 아니 다음 주부터라도 주차팀원 복장으로 같이 아이하시고 함께 합시다! 이 모두가 내 부모,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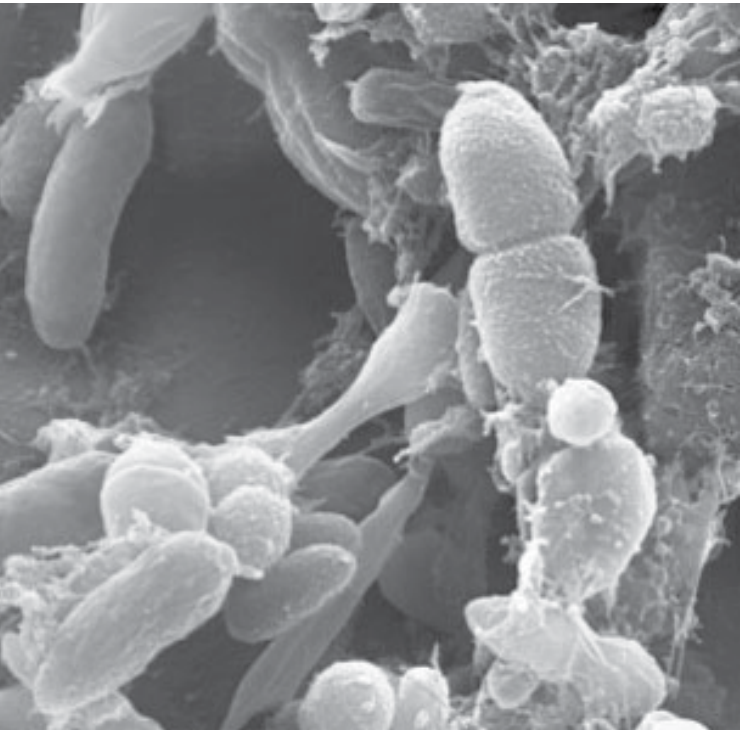
취재, 사진 한 혁



장내 미생물 이야기



1970년대 말 호주 ROYAL PERTH HOSPITAL 병리학자였던 J. ROBIN WARREN은 만성 위염 환자의 조직에서 커브 모양의 박테리아 (지금 HELICOBACTER PYLORI (H. PYLORI)로 알려진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된다. 그 이후 그는 이 박테리아가 위염을 일으켜 만성상태로 가게 되면 위암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발표한다. 그 당시 위장의 강한 산성 환경 (PH=2~3)에는 어떤 박테리아도 살 수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가설을 믿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와 함께 일하던 수련의 BARRY J. MARSHALL은 H. PYLORI가 위염을 일으킨다고 믿어 이 박테리아를 직접 마셔 위염에 걸렸고 자신의 위 조직을 검사하여 위염의 원인으로 H. PYLORI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공로로 이들은 200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는다. H. PYLORI는 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세계 인구의 약 50% 정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인에게 이 박테리아가 높게 발견되고 있으므로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H. PYLORI 박테리아는 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장내 미생물들이 다양한 암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해 왔고 이미 상당한 과학적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이다.



2000년대 중반 MIT의 ERDMAN 박사 연구팀은 장에서 종양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헬리코박터의 종류인 H. HEPATICUS가 대장암을 유발하는 실험을 하던 중 놀랍게도 몇몇 생쥐들에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발달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 즉, 대장암을 유발하는 H. HEPATICUS가 대장에서 떨어져 있는 유방과 전립선에서 암을 발생시킨 결과인데 이것은 이 박테리아가 만드는 신진대사 물질들(POLYAMINES, ARYL HYDROCARBON, SHORT-CHAIN FATTY ACIDS 등등)이 혈액을 통해 퍼져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대장암 환자들의 박테리아 종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강 내에 존재하는 FUSOBACTERIUM이나 PORPHYROMONAS 같은 박테

리아가 환자들의 변에 다량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의 PEER BORK 연구팀은 무작위로 선택한 156명의 사람들의 변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여 그 중에 누가 대장암 환자인지를 상당한 정확도를 갖고 알아맞췄다. 흥미롭게도 이 두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주요한 신진대사물질은 육류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대사 물질과 같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육류 섭취와 대장암의 발생에서 이 박테리아가 관여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UNIVERSITY OF CHICAGO, THOMAS GAJEWSKI 박사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또 다른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생쥐들을 서로 다른 두 회사 (TACONIC과 JACKSON)에서 구입한 후 종양 세포를 이식했더니 TACONIC 생쥐가 JACKSON 생쥐보다 종양이 더 공격적으로 자란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다음 JACKSON 생쥐의 배설물을 TACONIC 생쥐의 장에 옮긴 후 종양을 이식했더니 TACONIC 생쥐에서 종양 성장은 JACKSON 생쥐처럼 둔화되었다. 즉, 이 결과는 JACKSON 생쥐의 배설물 속에 종양의 성장을 완화하는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연구팀은 JACKSON 생쥐의 배설물 속에서 BIFIDOBACTERIUM이라는 박테리아가 면역을 자극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 박테리아를 다시 TACONIC 생쥐의 장에 옮겼더니 암의 성장을 눈에 띄게 억제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즉, 이 결과는 특정한 박테리아의 종류가 면역 자극을 통해 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식품 중 면역 작용을 증가시켜 암이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는 무엇일까?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요거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LACTOBACILLUS라고 불리는 유산균이 우리의 면역 세포를 자극하여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 LACTOBACILLUS는 인터페론 감마 (IFN-γ)라는 단백질을 통해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해 암의 성장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가 요거트를 즐겨 먹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요거트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들 중 달지 않은 PLAIN 요거트를 권하고 싶다. 주로 과일 종류나 견과류와 섞어 먹고, 잼과 함께 빵이나 베글에 발라먹거나 샐러드드레싱으로 사용하면 'PLAIN' 요거트는 어느새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근사한 식사대용이나 후식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들과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요거트를 우리의 식생활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지현배 (면역학)

참고 문헌

1. "GUT MICROBIOTA, METABOLITES AND HOST IMMUNITY", NATURE REVIEWS OF IMMUNOLOGY, 2016, 16:341
2. "GUT MICROBIOTA, INFLAMMATION AND COLORECTAL CANCER", GENES & DISEASES, 2016, 3: 130
3. "MICROBES MEET CANCER", THE SCIENTIST, APRIL 1, 2016

동주 (2015)

영화는 온통 흑백이다. 아스라이 꿈갈던 어린 시절마저 갈색빛으로 재생된다. 대한민국의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자란, 시인 윤동주의 28년생은 채색하기 어려운 하늘 같고 바람 같고 별 같은 시인의 삶이었다.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의 검은 취조실. 어두운 벽 높이 붙은 작은 쇠창살 사이로 빛이 조금 비쳐든다. 그 안에 한 청년이 죄수복을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다. 죄수 같지 않은 유순한 얼굴이다. 일본 경찰이 그의 이름과 출생지를 확인한다. 이름은 '히라누마 도쥬' 인데 출생지는 조선 북간도이다. 심문의 내용은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궁이다. 맑고 침울한 눈의 남자는 줄곧 모르는 일이라 대답한다. 그의 모른다는 대답은 과거를 회상시킨다.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조선 북간도 어느 시골의 모습이 펼쳐진다. 어린 시절로 돌아갔건만 잠깐의 평화로운 시간에도 어떠한 빛깔이 들어서지 못했다. 나라를 빼앗긴 이들의 일상에는 작은 행복조차 물들 수 없는 어둡고 깊은 슬픔이 배어 있다. 그 어두움은 너무 짙어서 삶의 모든 색깔들을 삼켜 버렸다. 색깔을 잃은 나라, 그 한복판에 두 남학생이 보인다. 첫 장면에 나타난 죄수복을 입었던 윤동주와 그의 이종사촌인 송몽규이다. 마당 밖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교회와 학교, 공산주의, 일본 정부와 나라 조선에 얽힌 고통을 성토했고 있다. 몽규는 갑자기 뛰어들어 조선 독립을 위한 소신을 쏟아 내고는 달음박질한다. 동주는 놀란 눈으로 두리

번거리며 몽규를 쫓아간다. 달음질 끝에 도착한 한 헛간에서 몽규는 정지웅의 시집 한 권을 꺼내어 준다. 세상의 혁명을 외치던 그가 동주를 위해 구해 두었던 귀한 책이다. 동주는 뿔 듯이 기뻐한다.

몽규는 영화에서 여러 번 동주에게 시집을 건넨다. 그는 시 쓰는 동주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했다.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지 못하면 글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을 모으는 문예지를 만들고 기회가 되면 독립운동을 위해 떠났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동주에게 시는 삶이었다. 시인은 소명이었다. 그런데 나라 조선이 주권을 잃자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혼란스럽고 부끄러워졌다. 삶과 시대를 깊이 고뇌하지만 그럴수록 차고 넘쳐 쏟아져 나오는 것은 시였다. 동주는 미련해 보일 만큼 끈질기게 시인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나라의 독립보다 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영커 있다. 주권 없는 국민으로서 글 쓰는 것이 의미 없던 몽규처럼, 시 없는 인생은 동주에게 의미가 없었다. 일본 경찰은 동주의 시를 빌미 삼아 독립사상을 죄목 삼으면서도 시만 썼던 동주의 삶이 비겁하다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나, 동주를 사랑했던 몽규는 늘 너는 여기 남아 시를 쓰라 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운명의 길은 줄곧 그렇게 대비된다. 그래서 동주의 고통은 더 무거웠다. 뒤돌아보면,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동주의 길은 보기



에는 꽃길인데 걸어가기 부끄러운 길이었다. 색깔도 향기도 없는 그림자 같은 길이었다. 앞세에 이는 작은 바람에조차 아픈 길이었다.

일본 경찰은 과거의 화면을 톡 끊고 등장하여 동주를 재차 취조한다. 목적은 오직 하나, 조선인 수감자의 사형 명분화이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취조. 거기에는 잔인한 고문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마음은 수없이 금이 가서 내려앉기 일보 직전의 유리창 같아진다. 어디서 본 듯하다.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물어 죽음을 선고하는 것. 십

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떠오르게 한다. 꼭 닮았다. 마음을 옥죄어 오는 무거운 고통이 전해져 온다. 서늘하기 짝이 없는 죽음의 손아귀이다. 동주는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의 해방을 육 개월 앞두고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 필요했다. 이 땅의 나라들뿐 아니라 영적인 나라에서도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려면 영토와 주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선의 경험은 모든 인류 역사의 축소판 같다. 인간은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 분항에서 쫓겨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잃었다. 조선이 주권을 잃자 과연 국민은 식민지배의 억압과 고통을 받으며 해방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인간도 죄와 죽음 권세 아래 그림자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주권을 잃은 백성의 삶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색깔 없는 흑백 세상일 뿐이다. 참된 삶이 되려면 빛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이다.

어떤 이는 주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몽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동주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끈질기고 묵묵하게 걸어간다. 동주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번뇌는 쉽사리 떠나지 않는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소명의 길을 간다는 조롱과 부끄러움이 맴돈다. 몽규의 삶을 동경하지만 동주의 삶은 결코 그 길과 교차되지 않는다. 서로를 비추며 함께 걸어갈 뿐이다.

대의를 위해 문학을 포기한 몽규의 삶, 그리고 대의를 위해 더욱더 자신의 소명을 고수했던 동주의 삶.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글 한연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 윤길목 집사님과의 토크

가을 하늘이 유난히 청명한 토요일 아침, 약간 긴장된 마음을 안고 재정부실로 향했다. 취재팀을 반갑게 맞아 주시며 정성껏 내려주신 커피로 인해 긴장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화기애애함이 온방 가득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임마누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 드린 예물을 신실하게 관리하시는 충성스런 청지기, 윤길목 집사님을 만나 보았다.

Q. 윤 집사님,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쉬는 날이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재정부실의 주일 모습은 어떠한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주일 아침 7:30분이면 현금 계수할 수 있는 준비와 지난주에 신청되어 발행한 체크 준비 등을 합니다. 1, 2, 3부 각 세 분씩 현금 계수를 하시는데 즐겁게 섬길 뿐 아니라, 권사님과 여집사님들은 마치 사이좋은 친자매들처럼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들이 정도예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기뻐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Q. 웬지 재정부 섬김은 힘들고 딱딱한 사역일 거라는 고정 관념이 있는데 실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이 가끔 저를 보면 “집사님, 재정부 일 힘드시죠?” 하고 물으실 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2012년부터 5년째 섬기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고 항상 재밌고 즐겁고 쉽게 느껴졌어요. 지난주에 청구한 영수증 체크를 빨

리 발급해 드리는 기쁨도 매우 크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실 때 한 분 한 분께 빨리 처리해 드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보통 회사에서는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교회이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니 많은 분이 잘 도와주셔서 어떤 일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Q. 항상 기쁘게 섬기시면 보람도 배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부탁하시는 일을 해결해 드렸을 때나 재정부 일은 아니어도 가끔 은행에 가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일을 도와 드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댁으로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일들도 즐거워요. 현금 내역서 같은 경우도 급한 분들에게는 일터까지 직접 갖다 드렸을 때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일이 전혀 힘들지 않고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미은행에서 채용자를 했어요. BANK OF THE WEST에서 4.5%(5년 고정)와 5.78% (10년 변동)인 이자율을 한미은행에서는 3.85%의 저금리로 용자해 줬어요. 한미 은행의 중역들께서 평소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자기들의 거래처로 삼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LA 한미은행 본사까지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이며 재정이 튼튼하고 투명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3.85%라는 싼 금리로 채용자를 받게 된 겁니다. 론을 받을 때가 프로모션 기간이라 신청자가 아주 많았음에도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배려를 해준 것이지요. 외부로부터 우리 교회가 단지 겉모습만 좋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재정 시스템도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인 모두 하나님을 선하게 섬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재정부 섬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 성도님들께 당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은행에 20년 이상 근무했어요. 이민 와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재정부에 들어 왔어요.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벌써 5년째 섬기고 있네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고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두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교회도 문화라는 말을 씁니까? 아무튼, 저는 교회 전체 분위기가 부드럽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우리 교회 같은 모습의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대개 담임 목사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임마누엘 인이면 모두 공감하는 손 목사님의 겸손함과 따뜻함에서 느끼는 분위기처럼, 현금 분위기도 아주 깨끗하고, 부족한 재정부 사역을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좋은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Q. 교회 재정의 올바른 쓰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만, 한미은행의 용자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는 교회규약에 따른 공식기구인 각 위원회,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 등을 통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지출집행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동의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정의 40% 정도는 선교와 구제에 쓰이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이나 미자립교회를 위한 구제사역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저 역시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교회들이 재정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교회 재정은 절대적으로 투명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재정은 매우 건강하고 당회의 결정 사항도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Q. 이제 끝으로 지난 5년 동안 재정부를 섬기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처음 재정부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을 때였어요. 내일이 제직회인데 토요일 자정이 되어도 숫자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제직회는 해야 하고 혼자 맞추려고 해도 전부터 이어진 거라 워낙 많이 안 맞으니 큰일 났다 싶었어요. 밤 12시에 재정부 몇 분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들은 물론, 어느 여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까지 모시고 오셔서 그때부터 양쪽으로 나눠 새벽 3시쯤 작업이 끝났어요. 밤을 꼬박 새우고 정리해서 제직회 때 보고를 잘 끝내고 위기를 극복했을 때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늦은 밤에 나와 주신 자체가 너무 고맙고 저의 위기를 구해 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알아서 하겠지’ 하셨으면 그만 일 수도 있는데 늦은 시간에 오셔서 결국 일을 다 해결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들로 인해 은혜도 많이 받았고, 재정부 일을 더 잘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고 잊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충성(忠誠)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충성 충(忠), 정성 성(誠): ①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②나라와 임금 등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라 적혀 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기쁘게 섬기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3)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취재 김정신 / 사진 김범진



동시

낙엽에게

백채은 (7학년)

너를 나무의 눈물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햇빛과 맑은 공기를 찌르던 얼룩진 낙엽
각바람에 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더이상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겨울은 언젠갈 슬금슬금 다가올 거니까

낙엽이 감추고 있는 바람, 상처, 꽃의 전쟁
이렇게 밝은 밤자국은 허공을 밟고 내려가
세상의 어디인가 다시 나타날다
뿌리부터 머리까지 차오르는 희망이 없다면
나무는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무의 눈물이 아니다
너는 동화를 꿈꾼 나무의 날개이다

파랏 파랏 희희~~

김수연 (중급 2반)

파랏 파랏 파랏 소리가 나네요
바람이 노래를 부르나 봐요

희 희 희 희~~ 소리가 나네요
나뭇잎이 춤을 추네요

바람에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나뭇잎에 춤이 너무
예쁘죠?

파랏 파랏 파랏
희 희 희~~

바다

이향별 (중급 2반)

바다는 넓습니다
엄마 마음도 넓습니다

바다 앞엔 동물들이랑 식물들이 울면
바다는 엄마처럼 토닥토닥 달래줍니다

2016, 전교인 성경 일독 은혜 한마디...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성경 읽기... 같이 가는 길이어서
힘이 납니다. 때로는 뒤처지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 이끌어
주시는 분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THE BIBLE TEACHES US HOW TO LIVE.”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 시간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성도의 견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I LIKE THAT THE BIBLE PROVID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KNOW TO LIVE IN THE LIGHT OF GOD'S PATH.”

“매일 성경 일독으로 태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자가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옴에 감사드립니다.”

“I LIKED HOW I KNOW WHAT IS GOOD AND WHAT IS BAD.”

“I LIKED THAT THE BIBLE TAUGHT ME HOW I SHOULD
BEHAVE AND DO TO BE THE CHILD OF GOD.”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I LIKED THE WISDOM THE BIBLE GAVE ME.”

“매일 매일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일독 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을 수 있는 은혜로
인해 영적 양식이 늘어감에 감사드립니다.”

“IT HAS BEEN AWARDING AND A BLESSING TO
READ THE BIBLE THROUGHOUT OF THE YEAR.”

“함께라서 통았습니다. 함께에 주님이 리더 되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2017년에도 화이팅!”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103-

2016 임마누엘 편집부 편집후기

주님, 올해도 부푼 저희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부터
충성호까지 은혜로 채워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따뜻한 편집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00

편집부에 등록되는 원고 내용이 참 도움되고 은혜롭고 도전이 됩니다. 이 귀한 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고 더 오래 묵상할 수 있도록 시선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섬김이 조금이나마 부푼 열매를 맺었길 바랍니다. - 이00

하나님께서 많이 부푼하고 보낼것없는 저를 편집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으신 편집부 멤버들과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한없이 부푼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부끄럼 없는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 김00

부푼 저에게 능력 주시고 작은 눈동에도 크게 기뻐하시며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 김00

사랑이 많은 편집부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편집부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00

편집부 식구들을 통해, 편집부에서 하는 일을 통해, 그리고
'임마누엘' 지면으로 만난 모든 분을 통해 교회 됨을 더 알게 되고
더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서00

한 해 동안 세 번의 임마누엘지 출간을 함께해 오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들어감을 보고 놀랐고, 이제는 독자에게 전해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 안00

우리의 글과 사진들이 복음과 소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나를 써 주시는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한00

사랑과 기도로 뭉쳐진 우리 편집부 팀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 윤00

사진 봉사 덕분에, 편집부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을 가까이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고 책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알게 되어 기뻐했는데...모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실히 봉사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 박00

한 해 동안 많은 은혜 받고 오모토모 일도 잘 배웠습니다. 바닷가로
떠난 부서 단합캠핑이 너무 기억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00

2016년 임마누엘 식구들과 은혜로 시작해서 찬양을
통해 충성으로 마무리하는 풍성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 김00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 Tel.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박용갑
기획	김정신
진행	한연선/김정신/한 혁
사진	김홍배/김범진/안종훈/윤영숙/박종현
교정및번역	정현주/정은하/안혜원
편집디자인	김은경/김유경/한 혁